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7)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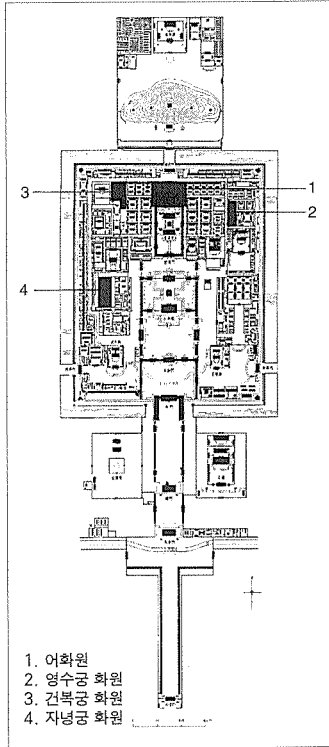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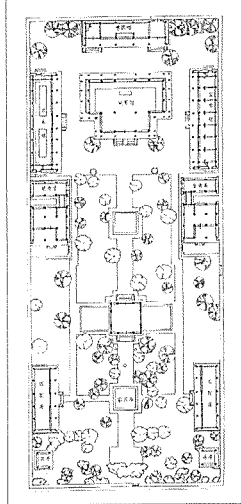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대부분 자신의 궁궐과 부속된 원림을 동시에 건조하였다. 궁궐은 일반적으로 주로 행사를 위한 건축군과 잠을 자기 위한 침전의 건축군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와 더불어 휴식과 오락을 위한 원림이 또 하나의 건축군을 이룬다. 이러한 원림은 황가원림의 한 유형¹⁾으로서 대다수가 궁성의 내부에 혹은 궁전의 맨 뒤,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조성되었다. 특히 명대 가경년간부터 청대 건륭년간까지의 사이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해짐으로써 원림은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같은 상황은 황가원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금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명청 양대²⁾의 황궁으로서 북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점유

1) 청대에는 황가원림으로 자금성 내의 궁원, 황성 내의 어원, 북경 서쪽 교외의 이화원과 원명실원, 하북 승덕의 피서산장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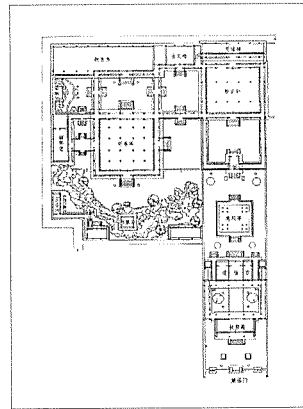
자녕궁의 전체적인 배치와 주요 원림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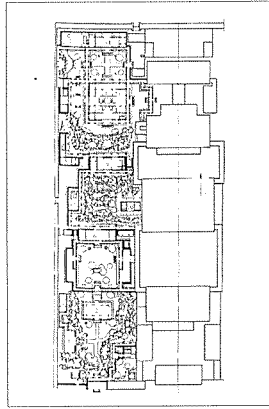
자녕궁 화원의 배치도

면적은 72만 평방미터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군이다. 이곳에는 가장 주된 원림인 어화원(御花園)을 비롯하여 건륭 34년(1769

년) 명대 인수궁(仁壽宮)의 옛 터 위에 중건된 자녕궁(慈寧宮)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녕궁 화원³⁾, 건륭 15년(1750년) 서육궁(西六宮) 서북측에 조성된 건복궁(建福宮) 화원⁴⁾, 6년간의 공사 끝에 건륭 41년(1776년) 준공된 영수궁(寧壽宮) 화원⁵⁾ 등 4개의 원림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어화원은 자금성의



건복궁 화원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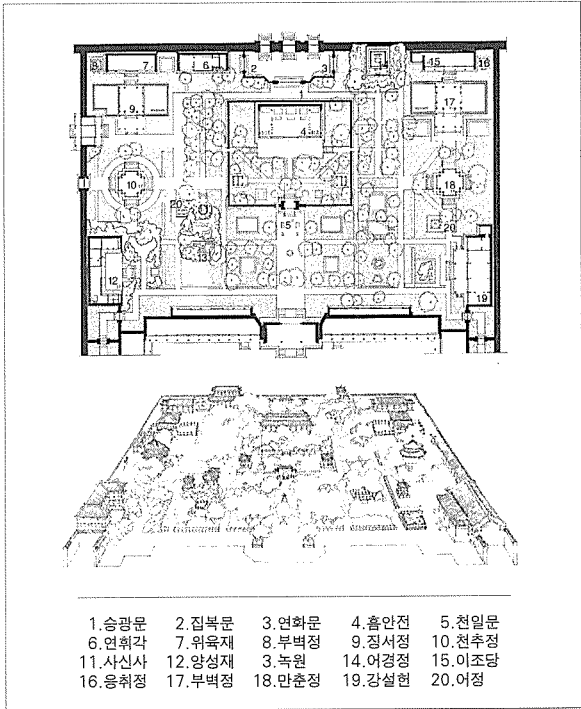


영수궁 화원의 배치도

중축선 가장 끝단에 자리잡고 있어 거대한 건축군의 종결점이 되는 동시에 점유면적이 가장 크다.

7.1 자금성 어화원의 규모와 배치특성

2) 명대는 1368-1644년까지 11명의 황제가 즉위하여 277년간 유지되었고 청대는 1644-1911년까지 10명의 황제가 즉위하여 267년간 지속되었다.
 3) 황태후, 태비·빈들이 휴식을 취하고 예물을 올리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4) 내정의 서숙에 있기 때문에 서화원이라고도 부른다. 점유면적은 4000여 평방미터에 이른다.
 5) 규모는 남북 1600미터, 동서 40미터 남짓으로 점유면적은 6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원림이다. 건륭황제가 퇴위 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륭 37년(1772년)에 착공되었다.
 6) 일부 책에는 동서 140미터, 남북 80미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고궁사전>(만능주편, 문화출판사, 1996년)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어화원의 조감도와 주요 전각 및 식재 배치평면도

- | | | | | |
|---------|---------|---------|---------|---------|
| 1. 승광문 | 2. 집복문 | 3. 연화문 | 4. 흠안전 | 5. 천일문 |
| 6. 연취각 | 7. 위육재 | 8. 부벽정 | 9. 정서정 | 10. 천추정 |
| 11. 사신사 | 12. 양성재 | 3. 녹원 | 14. 어경정 | 15. 어조당 |
| 16. 응취정 | 17. 부벽정 | 18. 만춘정 | 19. 강설현 | 20. 어정 |

명대 영락 18년(1420년) 어화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그 명칭이 궁후원(宮後園)이었으나 청대에 들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동서 약 130미터, 남북 90미터⁶⁾로 현천상제(玄天上帝)⁷⁾에게 제사를 올리는 흠안전(欽安殿)을 포함해서 1.25 헥타아르(약 11700평방미터)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엄격한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자금성이 가지고 있는 중축선의 흐름이 이곳에 이르러서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원림 안에는 정교하고 변화가 풍부한 크고 작은 루·대·정·각의 건축물 20동이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물과 나무들은 명대로부터 전해오는 것들이다. 청대에 들어서도 이곳은 내정의 예불, 꽃과 물고기의 감상, 사슴의 사육과 같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로 계속 사용되었다.

어화원은 대체로 흠안전(欽安殿)을 중심으로 한 중로(中路)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로(東路) 및 서로(西路)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동로의 북쪽은 궁성에 맞닿아 있는데 돌을 쌓아 높은 산을 만들었다. 돌의 중앙에는 동굴을 조성하였고 굴 입구의 문 위에는 “퇴수(堆秀)”라는 현판과 그 좌측에 건륭황제의 어필인 “운근(雲根)”이라는 두 글자를 새겼다. 산 정상에는 어경정(御景亭)을 세웠다. 산 밑

7) 현천상제는 도교에서 말하는 천제(天帝)를 가리킨다.
 8) 서적분류의 한 방법으로 갑·을·병·정부라고도 하며 이 4개의 부분을 모두 합쳐서 사부(四部)라고도 한다. 경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비롯한 유교의 경전들, 사는 25사와 같은 역사서들, 자는 주대갈 이후 제자백가를 비롯하여 석가, 도가, 천문, 술수 등 여러 가지 학설들, 집부는 사나 산문 등의 문학작품들이 각각 포함된다.
 9) <사고전서>는 청대 건륭황제의 칙명으로 역대의 저술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수집한 문헌을 수록한 중국 최대의 총서이다.

에는 돌 사자 조각이 있고 사자의 등위에는 석판이 올려져 있으며 석판 위에는 옹머리를 조각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석산(石山)의 동측에는 건륭년간에 만들어진 이조당(摛藻堂)이 있는데 건물 내부에는 경·사·자·집(經·史·子·集)⁸⁾으로 구분된 서가가 있어 <사고전서회요(四庫全書 薈要)⁹⁾를 보관하였다.



퇴수산의 밑에 설치된 돌 사자조각과 분수대

이조당의 동쪽에는 응향정(凝香亭)이 위치한다. 그 남쪽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부벽정(浮碧亭)을 세웠으며 연못의 서쪽으로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 연못의 남쪽은 하나의 중정을 이루는데 만춘전(萬春殿)이 세워져 있다. 만춘전의 동남쪽에는 서향을 한 강설현(絳雪軒)이 있고 앞애다 해당화를 심었다. 강설현의 남쪽은 경원동문(瓊苑東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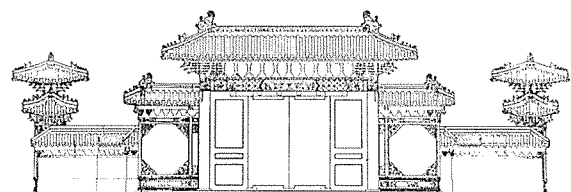
서로의 북쪽 역시 궁성에 맞닿아 있는데 명대에 청망각(靑望閣)이라고 불렀던 연휘각(延暉閣)인데 3칸에 2층 구조로 남향을 하고 있다. 연휘각의 남쪽에는 사신사(四神祠)가 마주보고 있고 위육재(位育齋)는 서쪽에 있다. 이러한 배치는 동쪽의 이조당과 대칭적인 구도이다. 위육재의 서쪽에는 옥취정(玉翠亭)이 있고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동로와 마찬가지로 연못 위에 징서정(澄瑞亭)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정자의 남쪽에는 천추정(千秋亭)이 있는데 동로의 만춘정과 같은 해에 개건되었다. 천추정의 서남쪽에는 동향을 한 양성재(養性齋)가 있는데 남북으로 3칸씩 서로 연결된 누각이다. 그 앞의 석산에는 화목이 심어져 있고 양성재의 남쪽은 경원서문(瓊苑西門)이다.

흠안전의 뒷편에는 승광문(承光門)이 있고 좌측에 연화문(延和門), 우측에 집복문(集福門)이 동서로 향해 있으며 승광문의 북쪽은 순정문(順貞門)으로 이 문을 지나 북쪽으로 나가면 자금성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을 마주 대하게 된다.

7.2 자금성 어화원의 주요 건축

(1) 순정문 일곽

어화원의 가장 북쪽의 끝에 있는 순정문(順貞門)의 남쪽은 3면이 모두 패루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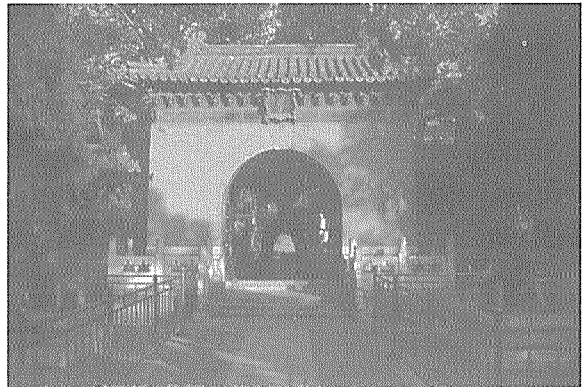


승광문, 연화문, 집복문의 입면

중정으로 꾸며져 있다. 어화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3개의 패루문은 보호벽이면서 안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문은 승광문(承光門)이라 하고 동문은 연화문(延和門), 서문은 집복문(集福門)이라고 각기 부른다.

(2) 흠안전 일곽

명대 영락 15년(1417년)에 세워지고 청대에 수리가 된 흠안전(欽安殿)은 원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대의 풍격을 유지하고 있다. 흠안전의 앞에는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정(方亭)이 있는데 석조계단의 난간은 모두 명대의 유물이다. 흠안전의 남쪽 정 중앙에는 천일문(天一門)이 세워



천일문의 전경

져 입구의 역할을 한다. 흠안전은 자금성 내의 중요한 도관건축으로 어화원의 전체구도로 볼 때 다른 건물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삼아 좌우 대칭적 구도로 전개된다. 흠안전의 좌우에는 부벽정과 징서정이 있으며 그 앞쪽의 동서에는 만춘정과 부벽정이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다. 흠안전을 중심으로 한 이 부근의 지역에는 10여동의 건축물이 좌우대칭으로 분산되어 하나의 정제된 패턴을 형성하고 중축선 상의 궁전건축이 가지고 있는 배치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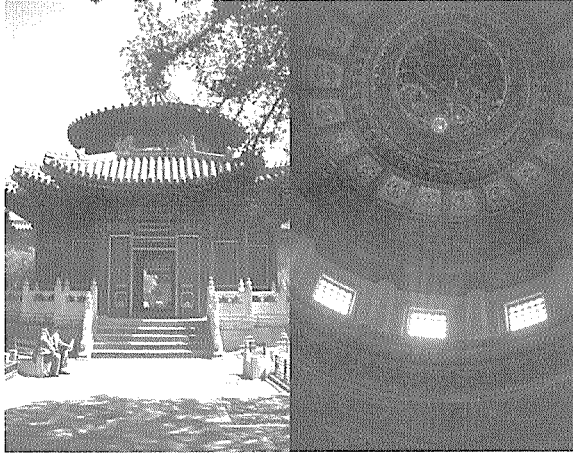
(3) 부벽정과 징서정

부벽정(동쪽)과 징서정(서쪽)은 흠안전의 좌우에 있는 방형의 정자로서 규모와 평면의 형식이 동일하다. 둘 다 동서로 긴 장방형의 연못 위에 석조아치를 만들어 기단으로 삼았으며 외부에 난간을 둘러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어 연못 속의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전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을 한 포하(抱厦)¹⁰⁾가 설치되어 입구의 성격을 명확히 해 준다.

(4) 만춘정과 부벽정

흠안전 앞쪽의 동서에 위치하며 서로 마주보

10) 포하는 결실 또는 딸린 실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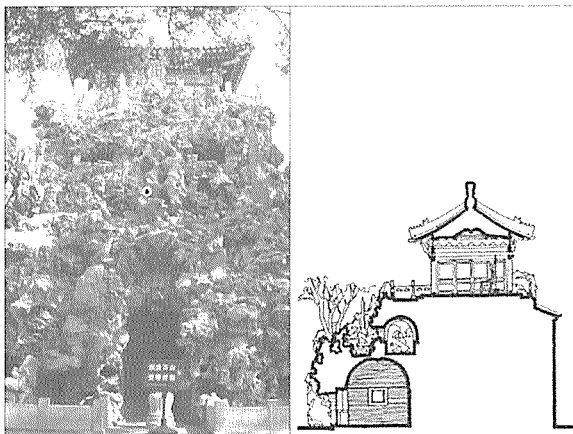


만춘정의 전경과 내부 조정천화

고 있다. 평면은 방형의 십자형으로 점차 축소되어 들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지붕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황색유리와를 올렸다. 하층의 지붕은 평면과 서로 호응하여 십자형의 모양이지만 상층의 지붕은 원형으로 고대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상징한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화려한 보정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정자의 내부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원형의 조정천화(藻井天花)가 있다. 정자의 기단은 한백옥석을 사용하였고 난간에서는 정교한 장식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는 크지 않으나 조형성이 뛰어나고 황가건축의 장중함과 원림건축의 활달함을 겸비하고 한 건물이다.

(5) 어경정

어경정은 세심한 고려를 하여 배치한 건축물로 높이 조성한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기단은 다른 건물과 달리 인위적으로 돌을 쌓은 뒤 그 위에 건축되었다. 기단은 마치 자연계의 산봉우리가 한데 모여 빼어난 경관을 이루는 모습이다. 산 밑에는 문이 있고 문 안에는 동굴이 있는데 돌계단을 따라 돌아서 올라가면 곧바로 어경정에 도달한다. 이곳은 어화원에서 가장 높은 경관점으로 매년 8월 중추절과 9월 중앙절이 되면 황제와 황후가 이곳에 올라와 하늘에 떠있는 달을 감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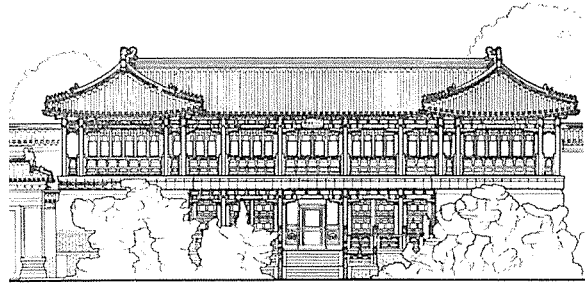


퇴수산과 그 위에 세워진 어경정의 전경 및 단면도화

였다. 어경정에서는 멀리 자금성 밖의 풍광을 조망해 볼 수 있으며 가까이 원림 전체와 궁성 내부의 경색(景色)을 조감해 볼 수 있다.

(6) 강설현과 양성재

어화원 남쪽의 동서쪽 모서리에 각기 위치한 강설현(서쪽)과 양성재(동쪽)는 평면의 면적은 거의 같지만 강설현은凸한 형태이고 양성재는凹한 형태로 각각 다른 평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높낮이도 달라 강설현은 단층이며 정면으로 포하를 내밀었고 양성재는 2층의 누당인데 남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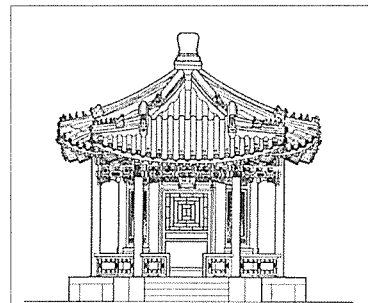
양성재의 입면도

양날개를 펼친 것 처럼 튀어 나왔다. 이 일현일재(一軒一齋)의 건축물은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질적인 형상을 취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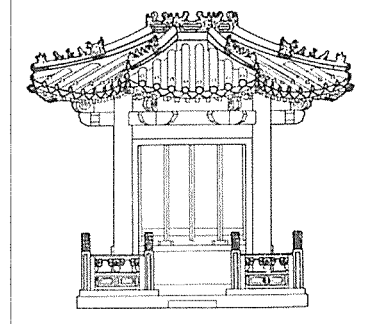
(7) 기타 건축물

인상깊은 원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화원의 설계자는 다양한 건축물과 소품을 다수 이용하여 원림의

구석구석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누·대·정·사·현 이외에 사신사(四神輔), 정정(井亭), 평대(平臺), 퇴석(堆石)이 바로 그것들인데 배치가 매우 합리적이다. 사신사는 팔각형의 정자로 그 앞쪽에 방형의 작은 현이 붙어 있다. 정정은 육각형의 평면에 녹정형식의 지붕을 올린 작은 정자로서 주위에 한백옥석을 이용하여 만든



사신사의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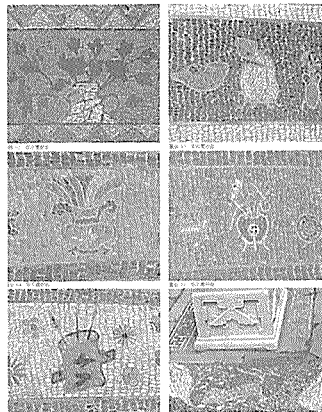
정정의 입면도

낮은 난간이 감싸고 있어 조형성이 뛰어나다. 높고 낮은 평대 위에는 돌로 만든 의자와 탁자가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 돌을 쌓아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어화원의 서쪽부분은 돌을 쌓아 만든 가산이 집중된 구역으로 어떤 것은 지나가는 길 사이에 놓여 있고 어떤 것은 누대의 옆에 몰려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은 어화원의 정취를 한층 더해 준다.

7.3 자금성 어화원의 기타 경관 요소

어화원의 길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설계로서 특히, 남쪽 면의 입구에 있는 동서방향의 용도(甬道)¹¹⁾에는 중앙에 방형의 전돌을 깔고 그 양측에 형형색색의 돌을 이용하여 짜맞춘 다양한 형식의 도안이 있다. 도안의 주제는 경치, 인물, 화훼, 동물 등 매우 다양한데 원림 전체로 볼 때 대략 모두 900여개 정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원림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석물분경을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기이

한 형태의 돌을 정교하게 제작된 받침대 위에 올려 놓았는데 어떤 것은 형태의 빼어남을 취하고 어떤 것은 돌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특이함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자갈이 박힌 사암 위에 마치 노인이 긴 소매의 옷을 늘어뜨린 채 두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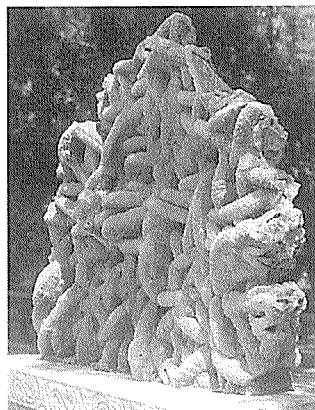


길의 바닥에 장식된 다양한 형식의 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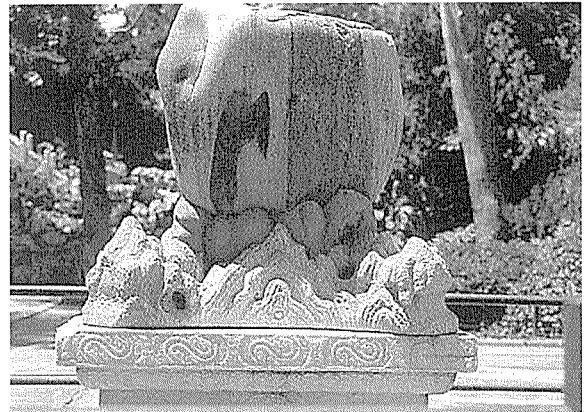
맞잡고 하늘의 북두칠성을 향해 읊하는 모습을 한 것 같은 문양의 석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을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북두칠성에 배례를 올리는 것으로 연결지었다.

그리고 원림의 주요한 경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식물을 살펴보면 어화원은 식재에도 독특한 면이 있다. 이곳에는 송백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위주로 심었으며 낙엽수와 사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는 화훼류를 그 사이에 적절히 배치하여 강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원인은 북

경의 겨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항상 푸른 경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백나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송백은 황가건축의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수종이기도 하다. 입춘이 지나면 화훼류가 정원에 배치되는데 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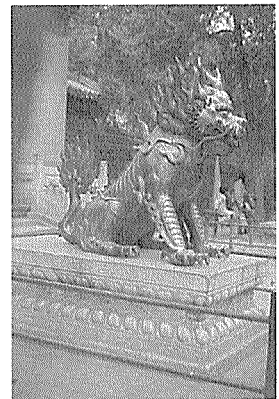
전국에서 수집된 진귀한 석물의 하나



제갈공명배복두라고 이름 붙여진 석물

심은 모란, 월계 뿐만 아니라 분경에 담겨진 석류, 물푸레나무가 원림의 분위기를 더욱 생기발랄하게 한다.

그밖에 승광문의 남쪽면 좌우에는 청동으로 만들어 금박을 입힌 코끼리 한 쌍이 흠안전 뒷편 처마의 벽체와 한백옥석(漢白玉石)으로 만든 기단의 난간을 바라보고 있다. 이 코끼리 조각은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수미좌의 기단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천일문 앞에는 청동에 도금을 한 기린과 감상용의 운석대좌가 건물의 위엄있게 만든다.



천일각 앞에 놓여진 도금한 기린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화원은 궁성

안에 있는 관계로 다른 황가원림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으나 당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교가 마음껏 발휘되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진귀한 소품들로 이루어진 중국 고전원림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어화원은 상당 부분이 퇴색되고 소실된 관계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당시의 상황을 추적해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건륭황제 당시 유럽과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수입된 분수의 존재로서 원명삼원의 서양류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륭황제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조당 건물을 통하여 원림이 단순히 황제들의 향락과 오락 생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과 지적활동의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㉞

11) 용도는 대규모 원림이나 능묘의 주요한 건축물로 통하는 길인데 대부분 벽돌이 깔려 있다.